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평가 리포트

기사 정보

기사 제목: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

언론사: 한국일보

기자: 최동순

발행일자: 2025년 2월 4일

기사 종류: 해설 기사

주제 요약: 외국인 보호소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입법이 지연되면서 강력 범죄 전과자 등이 보호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기사입니다.

뉴스 비판적으로 읽기

뉴스를 읽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

문제점 1: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

기사 인용: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기사 내용의 핵심은 제도 개정 지연인데, 제목은 범죄자를 강조하며 무서운 인상을 줍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낚시성 제목’일 수 있으며, 외국인 전체를 범죄자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비교해보세요. 내용보다 더 자극적으로 제목이 꾸며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2: 반론이나 다양한 입장이 부족해요

기사 인용:

“정부는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 상당수가...’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그러나...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부나 여당의 주장은 여러 문단에 걸쳐 설명했지만, 야당이나 인권단체 등 반대 입장은 짧게만 언급돼요. 외국인 당사자의 말도 없어요.

왜 문제가 되나요?

뉴스는 다양한 사람의 말을 공정하게 실어야 해요. 한쪽 말만 들으면 판단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기사 안에 몇 명의 주장만 반복되고, 반대 입장이 짧게 지나가면 균형이 부족한 기사일 수 있어요.

문제점 3: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기사 인용:

“중국 국적 장모씨는 둔기로 배우자를 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사에 실명에 가까운 표현("장모씨")과 범죄 내용이 너무 자세히 나와요.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위험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나요?

범죄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면, 사람에 대한 낙인을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름·국적·범죄 경력이 강조된 부분이 반복되면 인권 침해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뉴스 읽는 방법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누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사람을 범죄자처럼 단정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실습 활동 제안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에 충실한 제목”을 비교해 보는 활동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비교해 보는 활동

뉴스 안에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활동

추가 학습 자료

[인권보도준칙](#)

[좋은 뉴스의 기준을 배우는 수업](#)

결론

뉴스를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썼지?”, “이건 공정할까?” 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 리포트를 Markdown 또는 PDF 형식으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요약 정리 또는 후속 기사 감수 분석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